

# 김동리 초기소설의 심리학적 연구

- 용의 집단무의식을 중심으로 -

심영덕\*

|| 차례 ||

- I. 시작하는 글
- II. 용의 집단무의식과 헤테로토피아
- III. 샤머니즘과 금기의 공간
- IV. 재생을 통한 존재의 구원
- V. 마치는 글

## 【국문초록】

언제부턴가 인간은 서로의 목적 달성을 위해 모여서 살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편리함도 있지만 불편함도 동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일 경우 질서를 위해 사회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명시화가 되면 법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윤리나 도덕이 된다.

이것들은 작가들에 의해 문학 속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특히 김동리의 소설을 심리학적으로 볼 때 다른 작가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지 않는 신비성과 유기성들이 그 경우이다. 바로 본고의 목적도 이것에 대한 탐색이다. 이런 뜻에서 용의 집단무의식을 기준으로 샤머니즘과 금기의 공간을 먼저 연계시킨다. 그리고 단순히 억압된 욕망의 창고로서의 무의식이 아니라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에 자리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고착화된 김동리 소설에 나타나는 집단무의식을 발견하고자 한다.

김동리 소설에 나타난 샤머니즘과 금기는 종교적이고 선형적이며 거룩함과 부정함의 양면성을 지닌다. 이런 다양성은 작가연구의 풍요로 이어진다. 쉽사리 위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애초에 금기로 설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샤머니즘은 인간의 행동을

---

\* 경운대학교 인문창의학부 조교수

제약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심리학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본 연구는 하위 장르의 일부뿐이겠지만 김동리 소설의 또 다른 자리매김을 위한 작업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집단무의식, 금기, 샤머니즘, 인간존재, 헤테로토피아, 의식

## I. 시작하는 글

루카치에 따르면 소설은 문제적 개인이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다시 말해 소설의 진행은 그 자체 속에서 이질적이고, 개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순히 존재하고만 있는 현실 속에서 침울하게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부터 명백한 자기인식으로 문제적 개인이 나아가는 것이다.<sup>1)</sup> 하지만 생물학적 이론에 근거하지 않는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꿈을 자연발생적이고 맥락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독자와 작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먼저 독자의 경우는 작가가 설정해 놓은 인물들의 정신세계를 탐색한다. 그러나 작가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작중인물을 형상화하기 위해 가상의 이미지를 설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와의 관계망을 관찰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물을 완성하게 된다. 그 개인 특유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작품 속으로 좀더 깊이 내려가다 보면 신화나 전설 속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은 이미지가 출현할 때도 있을 것이다.

작가들은 대상(소재)을 주변 사실에서 취했다고 하더라도 사건들의 궤편을 주위 모아 반드시 인과관계를 구성하여 작품에 생명을 불어 넣어

---

1)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p.103.

한다. 이후 그것을 바탕으로 개성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작품 세계에 ‘유기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구성 정신이다.<sup>2)</sup> 이런 측면에서 김동리는 작품 곳곳에서 인간세계의 신비성과 유기성을 추구하는 특이함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작가는 소설에서 서술자를 설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서정적 전망을 표현하기 위해 개별적인 인물을 등장시킨다. 서술자의 지각이 투사된 상징적 주인공은 심미적 형상이 부각되면서 개인적인 요소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변형되기도 하는데<sup>3)</sup> 여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게 마련이다.

모든 개인의 정신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부구조를 집단 무의식이라 일컫는다. 이것은 개인 무의식과 달리 개인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유전되어온 무의식이 정신의 심층에 존재한다고 본다. 김동리의 소설이 특별하게 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신비성과 유기성이다. 동북아시아 민족문화의 기층부에 침전되어 있는 이런 집단 무의식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탐험이 잘 나타난다는 평가도 그 예를 같이한다. 「무녀도」(1936), 「허털풀네」(1936), 「당고개 무당」(1959), 「달」(1947) 등은 이런 탐험에 의해서 사면의 세계를 소설 미학의 세계로 끌어올린 작품들인 것이다.<sup>4)</sup> 여기에 대한 분석적 근거는 작가 스스로가 먼저 밝히고 있다. 김동리는 자신의 작품을 ① 샤머니즘을 주로 다룬 작품-「무녀도」, 「당고개 무당」, 「을화」, 「달」 등 ② 불교관계를 주로 다룬 작품-「등신불」, 「눈오는 오후」, 「까치소리」, 「저승새」, 「극락조」 등 6가지로 나누어 자신의 작품을 경향별로 제시했다.<sup>5)</sup>

2) 김주현, 『김동리 소설 연구』, 박문사, 2014, p.325.

3) 방민화, 『김동리 소설연구』, 보고사, 2005, p.69.

4) 이재선, 「무녀도에서 을화까지」, 『김동리』, 서강대출판부, 1995, p.161.

김동리는 자신의 연구에 대한 것들이 편향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토로한 바 있다. 샤머니즘이니 불교니 하는 계열의 작품은 장수로 계산해서 지극히 일부분인데 연구 방향을 그것에 초점<sup>6)</sup>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불편한 견해를 보인 적이 있다. 다음 글을 보면 샤머니즘에 민족 고유의 정신적 가치의 핵심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라는 작가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다.

내가 샤머니즘에 생각이 미치게 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였고, 따라서 오늘날의 무속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가장 원초적인 종교적 기능이라고 볼 때 그 가운데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적 가치의 핵심이 되는 그 무엇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sup>7)</sup>

그동안에 이뤄진 김동리의 연구를 크게 분류해 보면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설화 수용, 무속 신앙, 샤머니즘), 아니면 인간의 내면 탐구와 관련된 것(죽음의식, 근친상간), 종교와의 관련성(불교, 기독교)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생전에 발표한 작품 수<sup>8)</sup>에 비해 그 연구 범위와 방법은 다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근래에 김동리의 작품들을 기존의 방법에서 각도를 달리 해서 이뤄진 두 편의 연구<sup>9)</sup>는 다양한 해석을 유도할 수

5) 김동리, 『밥과 사랑과 그리고 영원』, 사사연, 1985, pp.115-116.

6) 김동리, 「나의 문학을 말한다」, 『꽃과 소녀와 달과』, 제삼기획, 1994, p.75.

7) 김동리, 「무속과 나의 문학」, 『명상의 늪가에서』, 향림출판사, 1980, p.156.

8) 그동안의 각종 연보를 종합해 보면 단편소설이 135편 내외, 중장편이 21편 내외로 집계된다.

9) 근대과학에 대립하는 ‘종교적 차원’과 ‘예술적 결합’을 통해서 근대주의를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로 봄.

이찬, 『김동리 문학의 반근대주의』, 서정시학, 2011.

한국의 무속과 중국의 무녀를 먼저 비교하고, 샤머니즘이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제3휴머니즘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

있는 단초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본고는 심리학의 영역 혹은 그 경계점을 확인하기 위해 작가 스스로가 샤머니즘 계열의 소설이라고 밝힌 네 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이후 무녀의 삶을 통해 신과 인간과의 만남을 구체화 한 「曼字銅鏡」(1979)은 작가가 특별한 언급을 한 적이 없기에 본고에서는 제외함) 먼저 2장에서는 연구의 세부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용의 집단무의식을 알아보고, 3장에서는 샤머니즘과 금기의 공간의식에 대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늘 비극적으로 귀결되는 죽음의 의미가 어떻게 구원의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집단무의식을 원용한 김동리의 초기소설들이 심리학의 측면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 II. 용의 집단무의식과 헤테로토피아

“인간의 구경(究竟)적 삶이란 인간 실존에 다름 아니며, 그것은 천지의 분신으로서의 인간이기에, 자연의 섭리에 순응함으로 자기를 관찰하기를 목표로”삼는 것을 말한다.<sup>10)</sup> 여기서 ‘구경’이란 사전적 의미로 마지막에 이르는 즉 불교에서의 가장 지극한 깨달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작가는 깨달음의 주체를 누구로 보고 있는가. 그것은 본인이기보다는 독자일 것이다. 허구의 인물을 내세워 자기 실현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작가의 생각이나 주제는 그래서 다분히 복합적이어야 한다.

---

전성광, 「김동리와 선충원 소설의 샤머니즘 비교연구」, 서울대박사논문, 2018.2.  
10)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2』, 아세아문화사, 1994, p.127.

융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실현’<sup>11)</sup>이란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전체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전체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융은 이것은 ‘자기 원형’이라 하였다. 정신은 다종다양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수많은 체계와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체계화시키면 다시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무의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상당 부분 무의식계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의식에는 의식이 망각해버린 기억이나 지각, 그리고 의식이 관계하고 있지 않는 기억이나 지각이 겹쳐 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의식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창조력이 있다. 그것은 꿈이나 공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무의식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란 개인의 사적인 ‘그 사람 개인의 기억이나 사고’ 만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개인의 체험이나 기억을 초월해서 전 인류가 걸어온 역사, 전 인류의 관념, 전 인류의 지혜가 스며있는 것이다.<sup>12)</sup> 따라서 무의식이란 그 사람 개인의 인생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전 인류 공통의 상상력이 미리 스며있다는 것이다. 융의 이런 측면을 종합할 때 프로이트나 라깡보다 그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중시하면서 낙관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11) 다른 말로 의식의 중심인 자아에서 전체 정신의 중심인 자기로 접근해 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 않다. 자기 집착의 버림, 집단정신과의 구별, 무의식의 통찰과 통합을 통한 끊임없는 자아 갱신이 이뤄지는 과정이다.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98, pp.112-115.

12) 융은 결국 무의식을 의식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형이 있는 무궁무진한 생산적인 에너지의 저장고라고 논증하면서 무의식의 범위를 확장한다. 광정연, 『정신분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p.48.

이것이 바로 집단무의식이다. 진화와 유전이 신체적 청사진을 제공하듯 집단 무의식이 정신의 청사진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다. 집단무의식은 조상 대대로 무한히 반복한 경험의 기억이 유전되어 정신적인 소질에 새겨진 인생의 전형적인 장면과 형상과 같은 원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원형은 창조적인 측면과 파괴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선악을 넘어서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행동유형이다.

라캉에 의하면 먼저 본능(충동)이 억압되어야 혹은 비틀려야 무의식이 생기며, 이 무의식이 의식으로 전이 되면서 그러나 동시에 막히면서(반전이), 우리의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반복을 무한히 계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sup>13)</sup>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제 즉 ‘억압, 전이, 반복’만으로도 무의식은 결코 표상되지 않는다.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이 세 개의 상징적 이미지는 하나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게 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미셸푸코가 미완으로 남긴 일종의 ‘사유 실험’ 즉 다른 공간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sup>14)</sup>와 유사하다. 그는 빈 공간에 사물이 점유하고 언어로 분류되면 사물화된 공간으로 의미를 생성한다고 본다. 그리고 유토피아가 실재하지 않는 비현실을 가리킨다면 이것은 어디에든 존재하는 ‘실현된 유토피아’적 의식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의식’이란 일상시의 지각(아는 일, 느끼는 일을 기억하는 일 등)

13) 김보현, 『데리다의 정신분석학 해체』, 부산대출판부, 2000, p.25.

14) “내가 거울 안의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게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절대적인 동시에 절대적인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행위 자체가 바로 그 실험”이 된다. 이상길, 『헤테로토피아』, 문학과학지성사, 2014, pp.47-48.

을 주관하며, 관념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당연히 본질이 자각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가 있다.<sup>15)</sup> 그런데 라깁은 프로이트가 의미하는 무의식이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즉 의식의 범위 너머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의식적이지 않은 것과 정확히 무의식(억압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구분한다.<sup>16)</sup> 결국 무의식적 과정은 정신분석 요법이 추천하는 자성적(自省的) 기법을 통해서 결코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뜻이다.

간혹 인간들 세계에서는 금기에 의해서 억압된 요소들이 무의식의 주변에 모여들어 조직화, 구조화 되어 그것이 어떤 의미의 부정적인 자기, 즉 자아의 '그림자'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즉 인간에게는 본인이 싫어하고 부정하는 악(evil)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음이다.<sup>17)</sup> 그림자는 동물적 본능의 근원일 뿐 아니라 자발성, 창의력, 통찰력 등 완전한 인간성에 필수적인 요소의 원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것을 완전히 억압하면 창조성과 생명력 같은 본성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의식에서 배제되고 무시된 요소들은 자아 의식의 뒤편에서 의식의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될 뿐이다.

숙희는 잠자코 고개를 수그러 버렸다. 순간, 달이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그리고 전전날 밤에도 방문에 비치던 검은 그림자가 떠올랐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마다 구름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숙희의 그림자였는지도 모른다고 헤아려졌다.(「달」, p.422)<sup>18)</sup>

15) 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의식=단어제시+ 사물제시, 무의식=사물제시, 이 공식은 단지 재현의 수단에 의해서도 의식과 무의식이 충분히 구분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이미선 옮김, 『무의식』, 도서출판 한나래, 2000, p.76).

16) 김서영 옮김, 『에크리 읽기』, 도서출판 b, 2007, p.186.

17) 한국융연구원 옮김, 『인간과 문화』, 솔, 2004, pp.102-104.



공간과 시간의 경험은 대부분 잠재의식적이다. 인간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간 감각을 가지며, 생물학적 존재로서 긴장과 안락의 순환을 겪기 때문에 시간 감각을 가진다. 숙희의 의식 속에는 ‘삼가다’의 개념이 그림자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그 본질에는 제약과 금지가 중의적으로 작용하면서 본래의 모습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달」에서 숙희의 방문에 비친 그림자는 ‘삼가’의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면에서 용이 ‘부정적인 자기’로 본 그림자와는 거리가 있다.

무의식은 우리가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알려진 어떤 것이다. 무의식이라는 것은 문제의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려진다. 무의식적인 부분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의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보다는 수동적으로 기록되거나 각인된다. 또한 그것은 주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체에게 의미가 옮겨지는 것이다.

### Ⅲ. 샤머니즘과 금기의 공간

원래 소설 즉 허구는 일상성에 대한 도전이다. 허구의 재미는 합리적, 관습적인 사실성(寫實性)보다도 대담하고 아기자기한 모험성에 있다. 옛날부터 인간의 행동 원형은 종류가 많지 않다고 한다. 겉으로 새롭고 복잡한 것이라 해도 그 이면에는 옛 신화의 원형이 숨어있는데, 그 원형은 그 사건에 대한 질서와 통일을 준다.

따라서 소설 속에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작가가 인물을 마치 실재하는 인물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작중인물의 무

---

18) 김동리, 『26金東里選集』, 어문각, 1982(이후 「달」 인용은 페이지만 표기).

의식 세계를 그릴 때는 필연적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허구적 세계에서 창조된 인물의 역할과 상징적인 의미를 함께 아울러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 문화의 경우로 한정시키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들은 대부분 샤머니즘과 연관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 전래적인 민간신앙의 한 유형인 무속신앙을 최초로 ‘샤머니즘 (shamanism)’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개화기를 거치면서 오기 시작한 선교사들에 의한 소개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다.

샤머니즘의 공간은 일반적으로 두 종류로 구분된다.<sup>19)</sup> 하나는 경험적으로 알려진 것을 둘러싸고 있는, 불완전한 지식으로 된 모호한 지역이다. 다른 하나는 세계관의 공간적 구성요소이며 국지화된 가치 개념이다. 이렇게 볼 때 샤머니즘은 단순한 무속 또는 그와 연관된 일정한 지역이나 어떤 행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종교보다도 전파력이 강해 그 지역 혹은 한 국가에 미리 자리 잡고 있었던 민족종교로 자리잡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종교로 세력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무당과 판수를 믿는 것은 거룩거룩하시고 절대적 하나 밖에 없는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 죄가 됩니다. 무당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무당은 썩어빠진 고목 나무나, 듣도 보도 못하는 돌미륵한테도 빌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판수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무녀도」p.354)<sup>20)</sup>

김동리가 바로 이것을 소설 문학 속에서 전유물처럼 사용하게 된 것은, 이 샤머니즘의 비극성에 주목하고 그것을 재빠르게 작품 속에 녹아내려

19) 구동화·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5, p.142.

20) 김동리, 『등신불』, 정음사, 1964(이후 「무녀도」와 「당고개무당」은 폐이지만 표기).

다른 작가들과 자신을 차별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머니즘이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것은 역시 불교, 유교, 도교와 같은 전통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문화전통을 가지는 것이다.

무당 모랭이가 달득이를 배게된 것은 지금부터 열 여덟해 전, 과부된지 오년 만에, 그때까지 시름시름 까닭없이 앓고 있던 병 끝에 우연히 무당 귀신이 들리어, 새 무당이 났다고 한창 소문이 자자했던 그녀의 나이 갖 설혼할 뻔할 때였다.(p.419)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다. 과부가 된 지 오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신의가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하다. 무속에서 임신과 출산은 정상적인 궤도로 설명하기 힘들다. 소문이 나고, 귀신이 들리어, 중병을 앓는 것이 보편적인 통과의례이며 이것이 곧 진실로 포장되는 것이다. 그 진실에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다.

보름 지난 둥근 달이, 시작도 끝도 없는 긴 강물처럼 여자의 온 몸에 흘러드는 것이었다. 끝없는 강물이 자꾸 흘러 내려 나중엔 달이 실낱같이 가늘어지고 있었다. 그 실낱 같은 달이 흘러내리고 강물이 다하었을 때 여자의 배와 가슴속엔 이미 그 달고 시원한 강물로 가득차 있었던 것이었다.(p.419)

달이 강물과 서로 교차되면서 가늘어지고, 흘러내리고 가늘어진 것이 다시 굵어지고, 다 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동양의 신비로운 정신세계이다. 이것은 근대 이전 혹은 근대 이후의 어느 한 곳에 매어있지 않고 다양한 양상을 증언하는 포괄적 성격을 가진다. 그의 역사소설과 설화적 세계를

재생시킨 소설들은 근대의 한 가운데서 근대성에 대한 응전의 형식으로 행해진 글쓰기였다.<sup>21)</sup>

이런 신비적 사실들이 보편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간’이다. 이 공간은 대부분 불행의 장소로 나타난다. 이것은 샤머니즘 소설의 한 특징으로 자리 잡는다. 공간과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과 사유는 대단히 복잡하다. 그것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공통적인 경험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유아에서 시작한다. 때가 되면 유아의 작고 혼돈스러운 세계로부터 성인의 세계관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는 증거물 혹은 기념물이 첨가되면서 그 세력을 넓히게 된다. 김동리의 경우 작가 자신이 유년기에 겪었던 일들이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그의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가족관계에 실패한 문제점 있는 사람들이다. 작가가 어린 시절 경주의 성건동은 「무녀도」<sup>22)</sup>에 나오는 무당집 같은 곳이 많았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시무시하기까지 했던 그런 성건동의 분위기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특질적인 기질로 굳어져 정신세계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이 성건동의 분위기에서 자란 작가는 무속에 대한 남다른 견해와 애정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의 작품 여러 곳에서 자주 소개되는 배경인 ‘서문거리’는 주인공들이 바뀌어가면서 70년대 말까지 작품의 배경으로 소개되고 있다. 「먼산바라기」의 먼산바라기 영감과 병어리 노처녀는 나중에 「허덜풀네」에서 비슷한 인물로 형상화되는데 특히 노월과 아화가 사는 곳, 「무녀도」의 모화와 낭이가 사는 곳이 이곳과 연관되고 있다. 이것은 서문거리에 대한 작가의 유년기의 ‘충격적 체험’들이 바탕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sup>23)</sup> 이 체험들은

21) 김병길, 『정전(正典)의 질투』, 소명출판, 2016, p.192.

22) 이 소설은 1936년도에 발표된 후 47년, 63년에 전면적 개작과 부분적 개작이 이루어지고, 다시 「乙火」로 장편화 된다.

그의 샤머니즘계 소설에서는 거의 대부분 동일한 결말을 맺는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개인과 사회든, 개인과 개인이든 주인공들이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모두 무당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전통의식을 고수한다는 측면에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인물유형이겠지만 작품의 발표시기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종교 혹은 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다른 작가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요소들이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언어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인간은 그와 더불어 비언어의 소통을 주고 받는다. 비언어적 메시지가 세심하게 고른 말보다 더 많은 뜻을 전달할 때도 있고, 심지어 아예 반대되는 뜻을 전달할 때도 있다. 비언어적 신호를 발산하고 읽는 과정은 전부는 아니라도 대체로 자동적이며, 의식적 자각이나 통제를 벗어나서 행해진다.<sup>24)</sup>

여기서 일상적 언어나 기호들은 의식적인 경우이다. 반대로 이런 비언어적 소통은 무의식에 가깝다. 바로 여기에서 샤머니즘과 금기의 변별 요소가 발견된다.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샤머니즘의 출발점은 의식적이며 종합적이다. 공간적인 부분에서 금기는 샤머니즘보다 실제 인간의 생활영역에서 보면 부분적이다. 그러하기에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아니면 위협요소가 내재된 ‘금지’의 언어로 이어진다면 대부분 무의식적인 전달이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터부란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금제(禁制)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의 현실 또는 상태. 금지나 금제 그 자체. 또 그러한 금지가 인식되고

23) 김정숙, 『김동리 삶과 문학』, 집문당, 1996, p.101.

24) 김명남 옮김, 『새로운 무의식』, 까치, 2013, p.150.

강제된 제도나 관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시대나 금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견된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어디에나 터부는 존재한다. 그러하기에 일정한 범위를 두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동안 누적된 많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금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5)</sup>

1. 거룩함(holy)과 부정함(unclean)의 양면성을 지닌 터부는 속성상 종교적인 개념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2. 터부의 본질은 그것이 선형적(a priori)이라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터부는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경험 없이도 출발할 수 있다.

3. 터부는 원시적 공포와 함께 경험이 풍부한 원시인들이 기피하는 혐오스러운 것들로부터 발생한다.

4. 터부는 금지(prohibition)와 성스러움(sacred)이 결합한 이중의 개념이다.

5. 터부는 ‘위험 곳’에서 발생하는데, 위험한 곳은 항상 ‘애매한 즉 어중간한’ 중간지대에 속한다. 이곳은 동일성이나 체계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곳이다.

그는 빙글빙글 웃는 얼굴로 물 속에 비친 달을 들여다보며 무어라 중얼 중얼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흡사 누구와 무슨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 그의 얼굴은 어떤 즐거움에 빛나고 있었다.(p.425)

금기의 이면에는 무의식적 욕망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 하지만 진실은

---

25) 최창모, 『금기의 수수께끼』, 호모사피엔스, 2003, pp.27-29.

누구나가 공감해야 하는 말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드러낼 뿐이다. 더욱이 언어 밖에서는 진실한 개념도 허위의 개념도 없다. 따라서 존재의 문제는 예를 들어 진실이나 거짓말을 수반하지 않는다.<sup>26)</sup> 그는 혼자서 지껄인다. 상대는 물속의 달이다. 무의식으로 건네는 그의 말을 독자는 깊게 되새길 필요는 없다. 얼굴은 즐거움에 빛난다고 했지만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사실이 숨어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타부를 위반한 자는 그로 인해 자신이 타부가 된다.” 타부를 범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위험들은 회개와 정화의식을 통해 덮어지기도 한다. 타부의 원천은 사람들이나 정령들에 내재된 특수한 주술의 힘이며, 무생물을 매개로 해서도 전달될 수 있다.<sup>27)</sup>

따라서 이 샤머니즘과 금기의 공간은 늘 알게 모르게 맞닿아 있다. 김동리의 경우 이 두 요소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은 「당고개 무당」의 일부이다. 사실 이 작품은 그 구성이나 분위기, 인물의 배치 등이 기독교와 불교라는 점만 제외한다면 「무녀도」와 유사한 작품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산신령을 믿는다. 우리는 이런 산신령을 근대적 사고방식으로는 부인하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산신령이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진실일 수 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였다. 한번은 개호지(개를 물어가는 작은 범의 일종)가 내려왔는데, 당고개 무당은 “산신령님이 내려오셨다” 하고 산에 음식을 채려서 뜰에 내어놓고 절을 한다는 등 야단법석을 놓는 판에 개호지는 슬며시 도망을 쳐버렸다는 것이다.

26) 라깡분석치료연구소 옮김, 『자끄 라깡과 정신분석의 이면』, 인간사랑, 2017, p.366.

27) 김종업 옮김, 『토템과 타부』, 문예마당, 1995, p.46.

작가는 1947년 「무녀도」의 서문에서 ‘운명’을 발견하고 이것을 타결해 보자는 시도와 노력이라고 작품의도를 말하였다. 이러한 의견의 피력은 의도로서는 타당한 것이지만, 작품의 의미 조직은 변모하는 세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부적응의 비극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았다.

부뚜막 위에는 깨끗한 접시불(들기름의)이 켜져 있고, 접시불 아래 놓인 소반 위에는 냉수 한 그릇과 흰 소금 한 접시가 놓여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그 곁에는 지금 막 마지막 불꽃이 나불거리고 난 새빨간 불에서 파란 연기 한 오리가 오르는 「신약성서」의 두터운 표지는 한머리 이미 파리한 재가 되어가고 있었다.(p.351)

이러한 금기파괴는 무교와 기독교의 대결 양상으로 전이된다. 금기를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미와 육이는 서로 상대적이다. 이들은 경쟁 관계이면서 동시에 모방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냉수’와 ‘소금’은 심리학 적 측면에서 본다면 다분히 동양적이다. 그러나 ‘태움’ 의식은 어느 한 곳으로도 귀속되지 않는 복합적인 양상을 가진다.

작가가 의도한 마력은 작품의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미지에서 탐색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래적인 의미의 파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상징적인 문맥에 밀착하여 분석이 될 때 의미해석은 분명해진다.

두 사람도 손에서 갈퀴와 노를 놓아 버리고, 무당이 손을 들어 가리키는 쪽을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 보았다. 그 바다같이 깊고 어두운 수풀 위에 주름살 한 가닥 없이 활짝 핀 달의 얼굴은 과연 떠올라 있는 것이었다.(p.426)

「달」의 마지막 부분이다. 두 사람 손에 있는 갈퀴와 노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갈퀴’는 그들이 찾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거두어들이는 중요한 도구이며, ‘노’는 배의 전진과 좌우 방향을 담당하는 기능을 한다. 그것을 포기하거나 놓아버린다는 것은 그것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때 가능해진다. 그리고 물속의 달과 하늘의 달은 외형적으로는 이미지의 대조이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는 하나이지만 동시에 둘이기도 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았다기보다는 그들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던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저녁때마다 허덜풀네는 대개 술이 취해서 같이 취한 모화 무당을 껴안고 영동춤을 추었다. 그는 사철 모화를 그의 마누라라 부르고 모화 역시 그의 안해 노릇을 하든것이였다. 그는 가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라도 모화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하였다.<sup>28)</sup>

허덜풀네의 얼굴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무서운 적막’과 ‘깊이깊이 뿌리박힌 슬픔’이다. 그것은 인생의 일회성, 유한성을 깨달은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슬픔이다.<sup>29)</sup> 춤은 유희다. 그러기에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표현하는 몸짓이다. 대개 술에 취해서 춤을 추고 있을 때는 본인만이 그 기분을 알 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용인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생명의 유한성과 관계된다. 그러하기에 금기의 행동은 그 시간의 과거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이다. 쓸쓸한 주막 앞을 지날 적마다 ‘그의 벗은 호박 상통과 크다란 술 항아리’를 머리에 떠올리며 강한 몸부림으로 나타나는 그의 섭섭함은 그리 간단히 잊혀질 수 없는 온정이 되는 것이다.

28) 김동리, 「허덜풀네」, 『풍림』 제1집, 풍림사, 1936.12, p.12.

29) 조희경, 『김동리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9, p.93.

#### IV. 재생을 통한 존재의 구원

프라이의 비극적 서사이론에 따르면 비극이나 비애의 개념은 한 개인이 속하고 싶어 하는 사회집단으로부터 배제당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고립된 정신에 관한 연구가 비애문학의 전통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샤머니즘의 토대 위에서 김동리가 도입한 비극미가 그의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의문이 생긴다.

김동리에 있어서 샤머니즘은 작가의 세계관의 문제, 즉 신과 인간의 관계를 추적하는 주체로서의 작용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단시절부터 다양한 장르를 통해 표출된 전통적 세계로의 갈망은 다음의 회고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불교나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 이게 해당하는 민족 고유의 종교적 기능을 담당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였다. 내가 샤머니즘에 생각이 미치게 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였고, 따라서 오늘날의 무속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가장 원초적인 종교적 기능이라고 볼 때 그 가운데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적 가치의 핵심이 되는 그 무엇이 내재하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sup>30)</sup>

작가는 그의 문학의 원천적인 주성분이 ‘죽음과 자유’라고 밝힌바 있다.<sup>31)</sup> 그의 문학의 출발이 죽음의 공포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해 왔다. 어쩌면 이 경우는 ‘우로보로스’<sup>32)</sup>와 닮아 있다. 시작과 끝이 언제나 동일한 범위에서 겹친다

30) 김동리, 「무속과 나의 문학」, 『월간문학』, 1978년 9월호, p.151.

31) 김동리, 「죽음, 무속, 그리고 자유」, 『밥과 사랑과 그리고 영원』, 사사연, 1985, p.96.

는 점이다.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또 다른 인간형의 구제를 향한 과정이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원 혹은 구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용어로 대체되기도 한다.

달이(達伊)는 달, 또 달득(達得)이라고도 불렸다. 그 어머니 모랭이(毛良) 무당이 꿈에 달을 품고 낳은 아들이라 하여 그가 여남은 살 가까이 될 때까지 보통 『달아, 달아』 하다가 열 살이 넘어, 간신히 글방에 넣을 수 있었을 때부터 그의 외삼촌 경보가 달득이란 이름을 그에게 지어 주었던 것이었다.(p.419)

모랭이에게 달이는 아들이기 이전에 그녀가 존중하는 달의 화신이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비극적 종말이 예비된 것이었다. 그는 달의 화신이지만 세속적으로는 천한 무당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무녀 모랭이의 눈엔 물 속에 빠져 죽은 달이가 숲 위로 떠오른 달로 보인 것은 당연하다. 달이는 변전(變轉)의 생에서 원형의 달로 들어간 것이다.

……취한양, 얼이 빠진양 구경하는 여인들의 숨결은 모화의 쾌жат 자락만 따라 오르내렸다. 모화의 쾌жат자락은 모화의 숨결을 따라 나부끼는 듯했고, 모화의 숨결은 한 많은 김씨 부인의 혼령을 받아 청승에 자지러진 채, 비뿔을 품고 조용히 구비 돌아 흐르는 강물(예기 소의)과 함께 자리를 옮겨 가는 하늘의 별들을 삼킨 듯했다.(p.361)

일상생활의 논리로 결코 포착하지 못할 인간의 면면이 존재하는 바,

---

32) 융 심리학의 중심적인 상징으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형상으로 표상되는, 시작과 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시초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근원적인 완전성의 표상인 원으로서, 자기내함적(self-contained)인 속성을 지닌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로보로스(Uroboros)[나무위키], 환상동물사전 참조.

무속을 통해 나름의 ‘구경적 생의 형식’을 보여줌으로써 그 가려진 측면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무녀도」이다.<sup>33)</sup> 마지막 굿 장면에서 모화의 얼굴은 평소에 볼 수 없던 정숙하고 침착한 빛을 띤다. 모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굿 도중에 예기소에 스스로 들어가 죽음을 선택한 것은 자의식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종말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원형적 생을 살기위한 ‘행위’로 해석되는 것이 옳다. 그 행위는 용이 말한 ‘페르소나’ 혹은 ‘그림자’의 원형과 닮아 있다.

달이는 물을 들여다보고 무엇을 묻고 있는 모양이었다. 오냐, 하고 고개를 끄덕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러는 순간이었다. 달이는 배에서 물 속으로 떨어지며 있는 것 이었다(p.425)

달이가 하늘의 달에 점차 동화되어서 나중에는 강물에 비친 달(정국의 화신)과 이야기하면서 물에 빠진다. 달이의 죽음은 입사의 시련을 거쳐 강물과 달의 재생적인 이미지와 융합됨으로써 영원한 자연으로 회귀한 것이며, 또 이는 정국과의 영원한 결합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달이의 현실적 죽음에는 추호의 비극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물과 달이 교합된 순간에 달의 화신이기에 결국 재생의 공간인 강물에 몸을 던지는 것으로 자연과 합일한다. 이것은 「무녀도」에서 모화가 예기소에 빠져 죽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죽음이 단지 현실의 비극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운명예의 초극(인간 존재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다. 즉 그들의 행동은 자연의 섭리에 대한 굴종이아 순응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는 주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33) 김동리는 ‘구경적 삶의 추구’를 주장하기 위해 “모든 문화적 생산은 생이 現有하는 데서만 가능하다면 ‘문학하는 것’도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견해를 여러 글에서 강조하고 있다(홍기돈, 『김동리 연구』, 소명출판, 2010, p.209).

일반적으로 구원의 일차적 의미는 병이나 자연적 혹은 사회적 재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sup>34)</sup> 여기에는 병이나 자연적 혹은 사회적 재난을 인간의 힘으로 모두 극복할 수 있다면 구원의 종교적 의미는 제기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조건이 제시된다.

나는 그 못가를 몇 바퀴 휘휘 돌다가는 도로 버들과 복숭아가 영기인 언덕 쪽으로 내려오곤 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까닭 모를 설움과 빠져린 고독에 울어야 만 했다. 아아, 그 무렵의 까닭 모를 설움과 빠져린 고독은 무엇에 연유했던 것일까.<sup>35)</sup>

주인공은 어린 아이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점차 외부의 사물을 중요시 하면서 세계 내의 자기 존재를 상실해 나간다. 상실의 이유는 자아의 내면적 성장 때문이다. 그 속에서 아이의 시선은 삶에 대한 혼란과 단절을 경험한다. 그러한 단절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바로 종교적 직관이다. 여기에는 치열한 삶을 부각하기 위해 초월적인 삶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작가의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삶과 죽음은 내적 생명을 쟁취하기 위한 고뇌의 또 다른 흔적으로 보인다.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 있을 때는 순수하다. 하지만 다른 무엇 특히 종교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본연의 순수와는 멀어진다. 주인공은 어린 아이지만 그의 눈에 비친 자연은 결코 어리지 않다. 성장 과정에서 내면의 친진성은 자신도 모르게 때가 묻는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가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우주는 창조되고, 새롭게 탄생된 세계는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작가는 자신의 문학적 미의식 또한 죽음이 가장 기본을 이룬다고 밝히

34) 멀치야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성과 속』, 한길사, 1998, p.22.

35) 김동리, 『나를 찾아서』, 민음사, 1997, p.105.

고 있다. 대가족제도의 가난한 농가에서 조카와 함께 자라나야 했던 묘한 유년시절을 보낸 그는 사교에 익숙하지 못했고, 어려서 받는 친구의 죽음, 누나의 죽음으로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감수성 예민한 소년기를 마을로 들로 고독을 짓씹으며 헤매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만난 무속은 작가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에 충분했다.

무속에서는 영혼이 죽음과 별로 관계없이 일관성을 갖는다고 믿는다. 즉 우리의 육체는 변하고 병들고 상처 입고 죽는 등 심한 변화를 일으키지만 영혼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관성이 존재한다.<sup>36)</sup>

따라서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거나, 이미 이탈했다면 되돌려 놓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취한 방법은 금지나 터부를 설정하는 것이었다.<sup>37)</sup> 어쩌면 이런 행동은 재생이나 구원을 꿈꾸는 인간의 욕망과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요컨대 그런 조항들은 생명을 지키는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고개네는 그 뒤에도 그 집에 가서 쉬는 것을 끊지 않았다. 그러자 보름이는 사람을 시켜 서낭당 곁의 집을 헐어버리기로 하였다.(p.255)

그 집은 영원한 그의 고향이며 낙원이다. 그곳으로의 출입이 금지되고 급기야 헐어버린다는 것은 당고개네에게는 완전한 낙원의 상실이다. 이제 그녀에게 돌아 갈 현실적인 공간은 없다. 고향을 상실한 실의의 현실에서 그녀는 무당 노릇을 할 수 없게 되는 고통이 가해진다. 결국 낙원에 회귀하

36) 최길성, 『한국인의 한』, 예전사, 1975, p.144.

37) 이정덕 옮김, 『그림으로 보는 황금가지』, 까치, 1995, p.136.

는 것이 봉쇄당하면서 그녀는 다리 아래 벼랑으로 뛰어내린다.

밤중이었다. 큰딸이 한잠을 자고 나서 깨어서 오줌을 누고 달이 하도 밝기에 들창을 열어 보았다. 그랬더니 마침 저쪽 다리 위에 희끄무레한 것이 보였다. 움직이고 있었다.(p.257)

종교란 원시시대의 것이건 현대의 것이건 가릴 것 없이 초자연적인 힘과 교섭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초자연적인 힘이 말하는 명령에 응답하고자 하는 하나의 능동적 조직적 노력의 결정이다.<sup>38)</sup> 여기서 선택의 결정권은 수용자에게 달려 있다. 그 수용 시기 혹은 환경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내면의 갈등을 잠재우려는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문학을 하게 된 동기는 죽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작품의 대부분은 죽음으로서 끝을 맺는다. 초기의 작품에서만도 「무녀도」, 「바위」, 「황토기」가 모두 그렇고 나중의 장편 「사반의 십자가」 역시 그렇다. 죽음에 대한 집착은 나의 문학을 종교와 결부시켜 놓은 것인지 모른다.<sup>39)</sup>

그런데 그의 종교관은 단순하지 않다. 작가가 자란 어린 시절의 환경에 의해 친숙하게 된 무속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중학교시절 기독교를 알게 되면서 작가의 작품 세계는 많은 변화를 겪는다. 순수한 종교의식과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그가 갈망한 인생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심리학은 통과제의의 현대적 한 형태로서 이해될 수 있다. 분석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 속으로, 무의식의 암흑 속으로 내려가면서 자신의 유년기

38) 한완상 역, 『문화의 과학적 이론』, 삼성출판사, 1977, p.209.

39) 김동리, 『고독과 인생』, 백만사, 1977, p.164.

를 발견하게 된다. 이후 인간 존재의 근원적 구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 V. 마치는 글

문학과 심리학의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다. 이것은 곧 문학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심미적 가능성들이 많은 부분에서 심리학에 자리를 빼앗겼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인물과 세계와의 관계는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인물과 심리학의 기능을 암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묘사는 요즘 논의에서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문학의 관심이 그만큼 변했다는 사실이다. 서사 즉 이야기를 근간으로 삼는 소설도 예외는 아니다.

융의 집단무의식에 있어 이런 변화의 개념은 단순한 도구이고 발견을 이끌기 위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무의식의 발견에 의해 열린 새로운 현실의 영역을 우리들이 탐색할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의식의 발견으로 우리들 세계의 전체적인 관점이 넓어진 것은 분명한 일이다.<sup>40)</sup>

심리학적 측면으로 작품을 해석할 때 개인적, 사회문화적 원형이 갖는 힘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 기본 정신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것은 금기로, 사회문화적인 것은 샤머니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살펴 본 김동리의 소설들은 그런 흐름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냥 단순히 인물이나 사건을 논하기엔 아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

40) 권오석 옮김, 『C.G. 융 학 해설』, 홍신문화사, 1994, p.288.



니다. 한 작품의 의도를 단순히 담론에서 작위적으로 추출한 이미지나 상징 또는 형식 등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삶의 가치를 단순한 시각이 아닌 유기적 구조 속에 숨겨진 관계의 의미를 찾는 과정도 필요하다.

금기는 일종의 보호의식이고 경계 각성의식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인류의 정신적 측면을 전제로 한 의식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동리의 소설을 논할 때 한 종교가 아닌 여러 종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어느 특정한 종교적 입장에서 그의 소설을 재단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결론 또한 예측이 어렵다. 가끔 기법이나 외형적으로 보이는 요소에 치중하다 보면 숨어있는 진실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본고의 대상이 된 4편 모두 옴이 말한 집단무의식적 상황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등장인물에는 반드시 무당이 등장한다. 그러다보니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즉 금기와 관련된 공간이나 사건은 예기치 못한 영역에서 집단의 경험으로 축적되면서 잠재적 이미지로 자리잡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나 결말부에 나타나는 죽음 또한 유사한 순서를 밟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죽음은 인간에게 최고의 자유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의 축복이라는 측면에서는 벗어나는 일이지만 인간의 죽음은 능동적인 속성을 가진다. 여러 소설에서 작가가 죽음을 강조하는 것, 혹은 금기를 대체로 위반하는 것은 종교성의 영향인 동시에 작가 특유의 선형적 체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기타의 글(수필, 평론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부분적으로 이뤄진 심리학적 연구이다. 따라서 김동리의 소설을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성급하게 재단하는 것은 힘들다. 또한 연구의 본질

적 측면에서 설득력을 갖기는 힘들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전의 다른 작가들보다는 기초 자료나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심도있는 분야로 작품을 조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참고문헌】

- 곽정연, 『정신분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1.
- 구동화·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5.
- 김동리, 『나를 찾아서』, 민음사, 1997.
- , 「나의 문학을 말한다」, 꽃과 소녀와 달과, 제삼기획, 1994.
- , 「무속과 나의 문학」, 『명상의 늪가에서』, 향림출판사, 1980.
- , 「무속과 나의 문학」, 『월간문학』, 1978년 9월호.
- , 「허덜풀네」, 『풍림』 제1집, 풍림사, 1936.12.
- , 『26金東里選集』, 어문각, 1982.
- , 『고독과 인생』, 백만사, 1977.
- , 『등신불』, 정음사, 1964.
- , 「죽음, 무속, 그리고 자유」, 『밥과 사랑과 그리고 영원』, 사사연, 1985.
- 김명남 옮김, 『새로운 무의식』, 까치, 2013.
- 김병길, 『정전(正典)의 질투』, 소명출판, 2016.
- 김보현, 『데리다의 정신분석학 해체』, 부산대출판부, 2000.
- 김서영 옮김, 『에크리 읽기』, 도서출판 b, 2007.
-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연구2』, 아세아문화사, 1994.
- 김정숙, 『김동리 삶과 문학』, 집문당, 1996.
- 김종엽 옮김, 『토템과 타부』, 문예마당, 1995.
- 김주현, 『김동리 소설 연구』, 박문사, 2014.
- 라강분석치료연구소 옮김, 『자끄라강과 정신분석의 이면』, 인간사랑, 2017.
-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 방민화, 『김동리 소설연구』, 보고서, 2005.
- 양선규, 『한국현대소설의 무의식』, 국학자료원, 1998.
- 이경덕 옮김, 『그림으로 보는 황금가지』, 까치, 1995.
- 이미션 옮김, 『무의식』, 도서출판 한나래, 2000.
-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98.
- 이상길,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 이재선, 「무녀도에서 율화까지」, 『김동리』, 서강대출판부, 1995.
- 이 찬, 『김동리 문학의 반근대주의』, 서정시학, 2011.

- 전성광, 「김동리와 선충원 소설의 샤머니즘 비교연구」, 서울대박사논문, 2018.2.
- 조희경, 『김동리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9.
- 최길성, 『한국인의 한』, 예전사, 1975.
- 최창모 지음, 『금기의 수수께끼』, 호모사피엔스, 2003.
- 한국용연구원 옮김, 『인간과 문화』, 숲, 2004.
- 한완상 역, 『문화의 과학적 이론』, 삼성출판사.
- 홍기돈, 『김동리 연구』, 소명출판, 2010.
- M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성과 속』, 한길사, 1998.

**Abstract**

## A Study of Psychological in Kim Dong-ri's Early Novel

Shim, Young-deuk

Human beings come together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mutual goals. Thereby, it is true that there is convenience, and at the same time, discomfort. If you are not alone, a social system is created, which becomes a law if it is manifested, or morality if it is an invisible institution. In it, 'taboo' is created.

This is a new biography that is brought into the literature by the writers. Kim Dong - ri's novels of the shamanism series correspond to this. In this study, Jung's analytical psychology and taboo were first linked first. Kim Dong-Ri's novel, which is approaching the foundation of our spiritual culture, was then investigated from the psychological point of view, not merely as a repository of repressed desires.

Taboos are religious and a priori, with both sides of holiness and uncertainty.

Taboos have the power to limit human behaviors that cannot be set as taboo at first if they can easily be violat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scope of this term is quite wide, this study will be another work of Kim Dong - Ri 's novel.

Key words: Heterotopia, taboos, shamanism, human existence, Collective unconsciousness, consciousness

심영덕

소속 : 경운대학교 인문창의학부

전자우편 : cdlm0808@naver.com

이 논문은 2019년 04월 30일 투고되어  
2019년 06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06월 17일 게재 확정됨.